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6번 문제입니다.

In the fifth century *B.C.E.*, the Greek philosopher Protagoras pronounced,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In other words,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What good are you?”

(A) Abilities said to “make us human” — empathy, communication, grief, toolmaking, and so on — all exist to varying degrees among other minds sharing the world with us. Animals with backbones (fishes, amphibians, reptiles, birds, and mammals) all share the same basic skeleton, organs, nervous systems, hormones, and behaviors.

(B) We assume that we are the world’s standard, that all things should be compared to us. Such an assumption makes us overlook a lot.

(C)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drive train, four wheels, doors, and seats, we differ mainl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and a few internal tweaks. But like naive car buyers, most people see only animals’ varied exteriors.

*contour: 윤곽, 외형 **tweak: 조정, 개조

어디까지나 사후적 분석임을 밝히며(수업을 한 지문임에도 푸는 데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제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글도 아니며, 제 생각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B) - (C) - (A) 나 (B) - (A) - (C) 나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B) 이후에 (C)가 올 경우입니다.

In the fifth century *B.C.E.*, the Greek philosopher Protagoras pronounced,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In other words,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What good are you?” (B) We assume that we are the world’s standard, that all things should be compared to us. **Such an assumption** makes us overlook a lot. (C) Just as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drive train, four wheels, doors, and seats, **we** differ mainly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and a few internal tweaks. **But like naive car buyers**, most people see only animals’ varied exteriors.

※ **Such an assumption**: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자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와 비교되어야 한다. makes us overlook a lot: 그러한 assumption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간과하게 한다.

※ (C): (EBS 해설지 해석을 옮깁니다.)

다양한 자동차의 모델들이 각각 엔진, 동력 전달 체계, 네 바퀴, 문, 좌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로 외부 윤곽과 몇 가지 내부적인 변경 면에서 다르다. 하지만 순진한 자동차 구매자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동물들의 다양한 겉모습만을 본다.

(B) → (C) 로 이어질 경우, (C)의 **we**는 **인간**이 됩니다.

(B)는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많은 것을 간과한다고 얘기했는데, 이후 (C)의 내용은 인간들의 외부 윤곽과 몇 가지 내부적인 면이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인간들은 외부와 내부 약간이 각각 달라.” 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은 외부와 내부 약간이 각각 달라' 라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만 읽으셔도 됩니다....

※ But like naive car buyers: naive car buyers = most people

most people: 동물들의 다양한 걸모습만을 본다

naive car buyers: _____ ?

_____ ? _____ 에 들어갈 말은 자동차의 익스테리어(외관)만 보고 자동차 구매 결정을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buyers 이니까요.

정리하자면,

(B) → (C) 로 이어질 경우, (C)의 **we**는 **인간**이 됩니다. 인간만 될 수 있습니다.

(C)의 첫 문장에서, 인간들은 서로 다른 자동차 모델들처럼 외부와 내부 약간이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하지만 인간들은 동물들의 다양한 걸모습만을 본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 인간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간과함(왜 이걸 간과하는지 이해 안됨) →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동물들의 다양한 걸모습만을 봄(논리적으로 도저히 연결 불가능한 상황)

※ (C)의 두 번째 문장이 간과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과 세트로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C)의 **we**는 **인간**만 지칭할 수 있으므로,

인간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 인간은 자동차처럼 외부와 내부 약간이 각각 다른데(But), 대부분의 인간들은 동물들의 다양한 걸모습만을 봄(간과하는 내용)

밑줄 친 부분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외부와 내부 약간이 각각 다른것과 대부분의 인간들이 동물들의 다양한 걸모습만을 보는 것이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에어컨과 달력 중 뭐가 더 시원하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되는거라면.. 제 잘못입니다. 시간 뺏아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C)의 we는 인간과 동물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야 (A) → (C)로 이어지는 논리가 매끄럽구요.

(B) → (C)의 흐름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 1) 연계 교재라서 내용을 다 아니까, 또는 (A)~(C)를 이미 다 읽었으니까 머리에 context 입력이 된 상태
- 2) (B) → (C)로 갈 경우, (A)는 아직 읽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A)의 내용을 알고 있음
- 3) (B) → (C)의 흐름이 의심할 여지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느껴짐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정답의 근거에 속한다면(일부가 된다면),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학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연계 교재의 취지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변형문제들을 비웃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

하나의 의견 정도라고 생각해주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